『제임스 조이스 저널』
제15권 2호(2009년 12월) 5-20

「가슴 아픈 사건」에서의 사랑의 부재와 제임스 더피의 좌절

박 윤 기

I

「가슴 아픈 사건」("A Painful Case")을 다룰 본 논문에서는 조이스(James Joyce)가 마비의 중심지라고 불렀던 더블린에서 생중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임스 더피(James Duffy)의 마비와 몰락에 초점을 맞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와 상징에 대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인공인 제임스 더피의 내면의식에 대한 탐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할 것이며, 작품의 제목이 암시하듯 "가슴 아픈 사건"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러는 과정에서 필자는 「가슴 아픈 사건」이 그 외향적 의미에서 흔히 인정되는 바처럼 시니코 부인(Mrs. Sinico)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의 주체를 제임스 더피로 단정할 것인데, 여기에는 그의 "사랑의 부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실제로 「가슴 아픈 사건」에서 핵심어는 사랑이고 중심적인 주제는 바로 사랑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제임스 더피에게는 인간사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친교나 교우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야말로 그는 사랑이나 감정 그리고 인간적인 교류와는 완전히 차단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가 육체적인 사랑을 철저히 경계하며 도적적인 초인이 되길 희망하는 극단적인 자기절제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자기절제에는 타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철저하게 에고에 사로잡힌 이기심과 자기애라는 나르시시즘이 그 중심을 차지한다.

이렇듯 타인과의 교감이 없는 그는 『더블린 사람들』(*Dubliners*) 전체에서 자주 보이는 마비된 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견 제임스 더피는 사랑의 본질을 말하기 전에 사랑의 의미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없는 인물인데, 기실 그가 믿는 사랑의 의미란 단지 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적인 에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그는 남녀 간의 관능적이고 육체적인 사랑을 멀리한 채 이상적이며 관념론적인 사랑만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가 믿는 이러한 "플라토닉 러브"(Platonic Love)에 대한 가치는 순전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오만의 죄에 상응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비록 많은 비평가들은 작품 마지막에서 시니코 부인에 대한 그의 동정에 주목하면서, 그의 변모된 자아를 논하기는 하지만, 사랑의 부재로 인해 타인과의 교감이 완전히 상실된 그는 결코 변화되어 새로운 인격으로 세상과 대면하는 인물은 될 수 없다. 이 말은 제임스 더피가 비록 인식의 새로운 순간인 에피파니를 경험했다고는 하나, 그런 찰나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의 에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물이고, 따라서 그는 결국 더블린의 마비된 상황에서 또 하나의 마비된 인물로 남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자기중심적 혹은 자기애라는 나르시시즘에 의해 고립된 제임스 더피의 모습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II

「가슴 아픈 사건」에서 제임스 더피는 니체(Nietzsche)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Thus Spake Zarathustra*)에서 말하는 "초인"(Übermensch)처럼 타인과의 유대를 강박적으로 멀리하며 일상적인 영역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인물이다.

그는 일상적인 세계와 동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혼자만의 고독을 추구하면서 자기만의 영역에서 살고 있으며, 자신에게는 혹독하리만큼 엄격해서 마치 "초인적인 도덕성"(Boysen 395)을 강요하는 일종의 초인이라 할 수 있다. 일견 그는 초인을 창조한 니체를 인생의 안내자로 여기는 것 같으며, 자신은 절대로 평정을 잃지 않는 존재, 즉 초인과 같은 의지를 견지하려는 인물이다. 그는 본능적인 욕망 또한 철저히 억제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오직 음악이나 철학 그리고 문학이나 번역과 같은 문화적인 교양 및 정치이론에 집중함으로써 그러한 욕망을 억제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덕목을 평온함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여기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종교, 가족 간의 유대, 우정, 결혼, 정치와 예술 등등은 모두다 자신을 옭아매는 덫"(Herring 66)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듯 제임스 더피는 타인으로부터의 관심이나 구속을 회피한 채 자기에게 할당된 일만을 조용하게 처리하면서 고독하고 단조로운 일상을 영위하는데, 조이스는 이러한 그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이스는 『율리시스』(*Ulysses*)에서 벅 멀리건(Buck Mulligan)의 입을 빌어 초자연적이고 명상적인 예술가적 신화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비웃고 있다. 벅 멀리건은 자신과 스티븐 데덜러스(Stephen Dedalus)를 "이빨 빠진 킨치와 난, 초인(supermen)이다."(*U* 1.708-9)라는 말로 조롱한 적이 있다. 결국 "조이스에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도덕적인 철학이란 타인에 대한 이해심이나 연대감이 결여된 냉소적인 에고이즘에 지나지 않는 개념일 뿐이다"(Boysen 395). 이 같은 이유로 해서 제임스 더피의 서재에 있는 니체의 작품은 결코 진보적이거나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를 못한다. 그 책은 기껏해야 제임스 더피의 불모적인 삶을 강조해줄 뿐이며, 그의 무료한 삶에서 사랑의 부재를 부각시켜줄 뿐이다. 따라서 그의 도덕적인 철학은 한 마디로 도덕적 청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가 자신의 방을 꾸며놓은 모양에 의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 양탄자도 깔려 있지 않은 그의 방의 한 쪽 벽에는 그림 한 점 걸려있지 않았다... 그리고 벽의 구석진 한쪽 면에는 하얀 나무로 만든 선반을 책장으로 쓰고 있었다. 침대는 하얀 침대보로 덮여 있었고, 검붉은 융단이 그 다리 밑에 깔려 있었다. 세면대 위에는 조그마한 손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고, 낮 동안에는 하얀 갓을 씌운 램프가 벽난로 선반의 유일한 장식품으로 놓여 있었다. (*D* 103)

여기서 장식이라고는 거의 없는 공허한 방에 나무 선반과 침대보 그리고 램프의 갓이 모두 다 흰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정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의 이러한 정결함도 그 방의 패턴을 이루고 있는 색상을 고려할 때 쉽게 더렵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예견된다. "검붉은 색상의 융단"에서 알 수 있듯, 그가 선호하는 흰색은 그 밑에 깔려있는 붉은 색의 강렬함을 지배하지는 못한다. 또한 "검은색 철제 침대"나 "석탄 통"(*D* 103)처럼 검은 색상의 물건들은 그가 이미 인간적인 욕망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욕망을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책상의 뚜껑을 열면," 그 안에서 향기를 내뿜고 있는 "곯은 사과"(*D* 104)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음식은 조이스의 작품에서 각 인물들의 정서적인 상태와 사건, 또는 그것과 관련된 장소를 떠올려주는 역할을 한다"(Armstrong xiii). 때문에 사과는 제임스 더피의 정서나 혹은 상황과 관련해서 중요한 "객관적 상관물"(objective correlative)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사과는 그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욕망, 관능, 그리고 사랑, 즉 인생의 향연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육체적인 욕망이 결핍되어 있는 인물은 결코 아니다. 곯아가는 사과가 상징하듯이 그는 단지 자신의 욕망을 철저하게 억제하고 있는 셈이며, 그로인해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억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그의 이러한 특성에는 당시 아일랜드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가 육체적인 순결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것은 가톨릭이 국교였던 당시 아일랜드의 사회적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은 일이다. 비록 그가 "교파도, 신앙도 없다"(*D* 105)고는 하나, 그것이 그가 어린 시절부터 접한 종교적인 분위기와 단절되었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실제로 조이스는 이 작품에서 제임스 더피의 성향을 종교적 함의를 통해 반복해서 제시한다. 조이스는 20세기 초 아일랜드를 지배하는 커다란 두 개의 세력 중 하나를 가톨릭교라고 누누이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아일랜드의 가톨릭교 교리는 그곳 남성들의 성적인 정체성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더블린 사람들』 전체에서 많은 에피소드에 나오는 남성들의 공통된 불안감이기도 하다(박윤기 76).

따라서 「가슴 아픈 사건」에서의 제임스 더피는 자기 스스로는 보편적인 가치

관을 가졌다고 자부하나, 본질적으로 그는 도덕적으로 육체와 정신, 죄와 순결함 사이를 분리해 놓는 아일랜드의 가톨릭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남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인해 그가 시니코 부인과의 교제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철저하게 성이 배제된 존재로서 자신과 가까이 있을 때이다. 그리고 그 때는 그녀가 어머니이거나 혹은 고해를 들어주는 신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순간인 것이다. 실제로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녀는 그에게는 어머니이자 비밀을 다 털어놓도록 종용하는 고백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우울한 감정까지도 그녀에게만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녀는 마치 어머니만큼이나 마음을 써가면서 그의 본심을 모두 다 털어놓으라는 권유를 했다." 그 결과 그에게 있어 "그녀와의 교제는 고향을 잃은 외국산 화초의 뿌리를 싸주는 따스한 흙과도 같았다"(*D* 107).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 둘의 관계는 육체적인 관계를 의식해야 하는 남녀간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러한 관계가 철저하게 배제된 모자간의 관계라는 틀 속에서만 공존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성보다는," 오히려 육체적인 욕망이 철저하게 배제된 "가모장적인 기질의 여성을 원하는"(Henke 35) 셈이다. 따라서 그는 시니코 부인과 나눌 수 있는 육체적인 밀회를 억제하면서, 그녀가 자기와 같이 금욕적인 성향을 가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그는 오직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즘적인 욕망에서만 위안을 얻게 된다. 그 결과 그에게 있어 시니코 부인은 단지 자신의 나르시시즘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한정될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나르시시즘적인 욕망에 빠져 있는 제임스 더피는 시니코 부인과는 육체적인 욕망이나 성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직 자기만의 시각과 생각에만 몰입하는 나르시시즘적인 욕망에 빠져 있는 그는 여성을 단지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만 한정시켜 보고 있으며, 그의 이러한 태도는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이나 열정을 억제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 그가 시니코 부인이 어머니나 천상의 뮤즈처럼 고양된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인 열정을 지닌 평범한 여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당혹해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여성은 어머니처럼 신체적인 접촉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천사처럼 순수하고 순결한 영혼만이 존재하는 천상의 대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시니코 부인은 여성을 육체나 육체적인 욕망이 없는 신비적인 대상으로

만 한정시키려는 그의 욕망을 깨뜨리려 한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나르키소스에게 자신의 감정이 전달되기만을 소리치는 에코(Echo)인 격이다. 따라서 "라캉(Lacan)의 거울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에코의 외침"(Henke 35)은 육체적인 욕망과 열정이 사랑의 전제조건임을 상기시키는 소리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외침은 메마른 영혼을 자극시켜 삶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육체적인 열정의 필요성을 직감하고 있는 그녀가 자신이 깨달은 의미를 그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도인 셈이다. 다시 말해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육체적인 열정으로 그의 억압된 욕망을 자극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요컨대, 그녀가 자신의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 그의 육체를 만지려고 하는 행위는 메말랐던 자신의 삶과 마비된 그의 삶을 동시에 고양시키려는 시도인 것이다.

하지만 여성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어머니나 천상의 존재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제임스 더피는 그녀의 행동을 마치 윤리의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신체나 정신이 모두 메말라 있는 그는 시니코 부인의 신체적인 반응에 곧바로 거부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는 그녀와의 접촉을 금기시되는 영역 속에 있는 어머니와의 접촉인 것만큼이나 당혹해 하는 것이다. 이는 그가 "시니코 부인과의 접촉을 근친상간적인 교접으로 확산시켜 생각"(Henke 36)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그에게 있어 "그러한 행위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으려드는 이브의 죄"(Boysen 398) 만큼이나 엄청난 신성모독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나르시시즘적인 욕망에 빠져있는 그에게 있어 사랑의 대상은 이성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이어야만 하는 것이고, "천사처럼 고상"(*D* 107)한 존재가 되기를 꿈꾸는 그에게 있어 그녀와의 접촉은 신성을 위반하는 것만큼 감당할 수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제임스 더피의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이 없는 삶은 그가 살기로 선택한 곳이 리피 강을 따라 있고 피닉스 공원과 경계선을 이루는 마을인 채플리조드(Chapelizod: 이는 불어의 *Chapel d'Iseult*에서 유래한다.)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이러니컬한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그곳이 트리스탄(Tristan)과 이졸데(Isolde)의 사랑에 관한 전설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에 관한 신화를 「가슴 아픈 사건」에 적용해볼 때, 시니코 부인은 열정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된 이졸데라고 할 수 있고, 시니코 씨(Mr. Sinico)는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부정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마크 왕(King Mark)에 비유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임스 더피는 트리스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인데, 실상 두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둘의 성격과 상황은 완전히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결말 또한 완전히 상이한 모습이다. 전설 속에서 트리스탄은 마크 왕의 눈을 피해 이졸데와의 사랑을 나누지만 결국 죽게 되는데, 이 때 이졸데는 그의 주검 앞에서 그의 부인에게 "부인. 일어나 주세요. 나를 가까이 가게 해 주세요. 당신보다는 내가 더 울 권리가 있으니까요."(베디에 232)라고 말하며, 트리스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열정적으로 과시한다. 그녀는 트리스탄에 대한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아! 슬프구나! 야속하게도! 신은 내가 트리스탄을 한 번만, 다시 한 번만이라도 보게끔 살기를 원치 않는구나... 트리스탄, 내가 당신과 다시 한 번만이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한이 없을 거예요. 내가 당신이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한다면, 신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나의 최악의 고통이고, 내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은 당신은 내가 없이는, 당신은 죽을 수 없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죽을 수 없는 그런 식이에요. (베디에 228)

『폭풍의 언덕』(*Wuthering Heights*)에서 "난 히스클리프(Heathcliff)에요(82)"라고 외치는 캐서린(Catherine)을 떠올리게 하는 이졸데의 이 독백은 트리스탄에 대한 그녀의 사랑의 강도를 짐작하게 해 준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트리스탄의 사랑 또한 결코 그녀에 못지않게 열정적이고 진실하다. 반면 「가슴 아픈 사건」에서는 시니코 부인이 더피에 대한 사랑을 공표하는데 비해,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더피의 반응은 트리스탄에 비교하면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졸데에 대한 마크 왕의 태도가 그러하듯 자신에게 무관심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던 시니코 부인은 청교도적인 도덕성에 구속되지 않을 뿐더러 사랑이라는 감정에는 상당히 민감하고, 열정적이며, 도전적인 인물이다. 그녀가 비록 제임스 더피에게 때로는 어머니나, 또 때로는 영혼의 고해를 듣는 신부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녀는 본질적으로 열정과 정열이 풍부한 여인인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열정을 발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제임스 더피의 환상을 전복하려 든다. 이렇게 해서 그녀는 피상적인 말이 아닌 행동으

로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Herring 67).

반면에 자기애라는 나르시시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제임스 더피는 철저하게 육체적인 욕망을 억제하면서 고독한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의 공책에다 "성교가 있어서는 안 되므로 남자와 남자사이의 사랑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의 우정 또한 성교가 있어야하므로 불가능하다"(*D* 108)라고 적는데, 이 경구에서 그의 나르시시즘적인 자아에 대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전은경 외 250). 따라서 인간의 욕망을 상기시키는 에코와 같은 시니코 부인의 외침은 그러한 소리를 철저하게 거부하는 나르키소스인 제임스 더피에게는 한낱 쓸모없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서 생명력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그는 결국 시니코 부인을 자신의 영역에서 내치고서야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한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모든 관계는 결국 슬픔으로 끝나기 마련이다"(*D* 108)라는 말로 자신을 위안하려 든다.

이렇듯 제임스 더피의 나르시시즘은 한 마디로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특히 여성은 그에겐 낯설고 신비로운 대상으로 경험되어 왔기 때문에, 그가 여성을 생산성이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때문에 제임스 더피의 잠재의식에는 여성과 성교를 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신념이 지배적이다(Tucker 93-4). 따라서 그는 타자와의 관계보다는 언제나 내면적인 자아에 대한 명상에만 몰입하는 삶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껏 육체적인 관계를 멀리하면서 천사의 경지에 이르는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초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있던 그에게 여성인 시니코 부인이 죽었다는 소식은 자신이 지켜온 신조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결과 그녀의 죽음을 가리키는 "가슴 아픈 사건"에 대해 그가 보이는 최초의 반응은 다분히 자기 방어적이다. "그는 그녀의 비참하고 악취를 풍기는 악의 불결한 흔적을 보는 듯했다... 그 여자는 살아갈 자격이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D* 111). 이렇듯 그가 이미 사망한 그녀에게 보이는 처음의 반응은 격한 혐오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혐오감은 급기야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결국엔 유치한 죽음"을 맞게 된 그 여인과 자신이 한 때나마 가졌던 정신적인 교류에 대해서도 후회를 하게 만든다.

> 이렇게 죽다니! 그녀의 죽음에 관한 모든 기사와, 자신이 신성하게 간직했던 것을 그녀에게 이야기 했던 일에 대해 울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타락시켰던 것이다... 맙소사, 이렇게 끝나다니! 분명히 그녀는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못했다. 목적의식도 없고, 악습에서 헤어나지 못한 나약한 제물이요, 문명에 짓밟힌 처참한 여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처참하게 타락할 줄이야! (*D* 111-12)

그는 이처럼 자신의 "고상함에 치욕을 남긴" 그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못한 존재일 뿐 만 아니라, 무정하고 속물주의적인 도덕관까지도 지닌 천박한 존재라고 단정하기에 이른다. 때문에 그는 자신들의 관계가 고상하지 않게 끝난 것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그녀에게 뒤집어씌우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그 자신도 그녀와 함께 거닐곤 하던 "피닉스"(Phoenix) 공원에 들어가기 직전 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그곳에서 그는 그녀의 삶을 빼앗고 그녀에게 죽음을 선고했다는 자책감을 한 순간 느끼게 된다.

> 그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그밖에 별도리가 없었지 않느냐고 자문해 보았다. 그녀와 기만의 희극을 더 이상 감행할 수도 없었고, 그녀와 공개적으로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어찌 그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녀가 사라지고 없으니, 그녀가 밤마다 홀로 그 방에 앉아서 얼마나 외로운 생활을 했을까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의 생활 또한 그가 죽어 이 세상에서 사라져 한낱 추억이—누군가 그를 기억해줄 사람이 있다면—될 때까지는 외로우리라. (*D* 112-13)

따지고 보면, 시니코 부인이 죽는 것은 단순한 사고나 삶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의 거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기실 시니코 부인의 죽음을 전하는 신문기사를 보더라도 그녀가 죽은 것은 킹즈타운에서 들어오는 완행열차에 치인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더블린 시립병원의 외과부과장인 핼핀 박사(Dr. Halpin)의 소견으로는 시니코 부인이 당한 부상정도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고, "쇼크와 갑작스런 심장마비가 아마도 그녀가 죽은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D* 110)라고 말하는데, 이렇듯 그녀의 사인은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가 죽은 원인은 부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부재하는 개

념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공간이라 한다면, 이는 마치 『더블린 사람들』 전체에서 핵심적인 주제어가 되는 "노먼"(gnomon)의 공간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시니코 부인의 죽음에 대한 원인이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고, 단지 추론을 통해서만 예측해야 하는 빈 공간의 부분이라 한다면, 그것은 평행사변형의 도형에서 한쪽이 떨어져 나간 기이한 모양의 잃어버린 조각처럼 상상을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는 "노먼의 조각"(Herring 68)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쇼크와 갑작스런 심장마비라는 할핀 박사의 말에서 그 동안 겪었던 시니코 부인의 정신적인 고통을 추론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은 추론의 영역으로 빈 공간이고 여기에선 그 공간을 그녀의 치유 불가능한 외로움이나 "낙담"으로 해석할 수 있을 터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의미에서 「가슴 아픈 사건」의 "가슴 아픈 사건"은 직접적으로 시니코 부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제임스 더피의 거부는 결국 그녀의 외로움을 가속시키고 몰락을 재촉했으며, 몇 년 후 그녀가 커다란 상실과 낙담으로 인해 죽게 되는 결과를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가슴 아픈 사건」은 비록 그 이야기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그것처럼 치명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슴 아픈 사건」의 결말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의 경우처럼 사랑의 충만함에서 비롯된 비극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오히려 치명적이고 황량한 결말을 초래하는 불모적인 사랑의 부재와 그로인한 죽음에서 오는 비극인 것이다.

그는 시니코 부인이 죽었다는 신문의 기사를 읽고는 먹고 있던 저녁을 중지하고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순간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타인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그녀가 공허로서 존재할 때에야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의 감촉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가까이 있는 듯했다. 때때로 그녀의 목소리가 귓전에 울리고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 닿는 느껴졌다"(*D* 113). 이는 형체가 보이지 않고 단지 울림소리로만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전술한 에코에 대한 비유에 타당성을 더하는 것이며, 실제로 인용된 부분은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목소리가 전달되기 시작하는 에코 혹은 시니코 부인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전달과정에 자극을 받은 제임스 더피는 난생 처음으로 그녀의 낙담과 죽음에 자신의 책임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한다. 그러면서 그는 니체의 초인처럼 절대적 영역에 도달했다고

여겼던 자신의 삶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러는 도중 그는 공원 주위에서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커플을 보게 되는데, 육체적인 사랑을 만끽하고 있는 이 장면은 그를 더욱더 큰 절망에 몰아넣는다. 그는 이 순간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그리고 자신과 삶 그 자체와 사랑으로부터, 무엇보다도 그 한 쌍의 연인들을 그렇게 몰두하게 만든 성적인 관계로부터 추방되었다는 인식에 이르게 된다. 이는 조이스의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는 에피파니의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에피파니를 통해 제임스 더피는 마침내 시니코 부인의 목소리와 감촉을 처음으로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인식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을 뿐 더러, 그나마도 그것은 지속적이거나 완결된 것이 아니며, 결국 유아론적인 자기 탐닉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육체적인 순수성을 지키면서 영혼을 고양시키려는 욕망이자 사랑에 대한 공간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우세한 나르시시즘적인 욕망에서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작품은 자기 탐닉적인 고독으로 인해 자아가 상실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자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기 옆에 있지도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제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완전히 고요했다. 그는 혼자임을 느꼈다"(*D* 114). 산다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하지만 제임스 더피는 언제나 중심은 오직 자신이었고,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만이 옳은 것이라 여겼었다. 그 때문에 그는 오직 자기애에 집착한 나르키소스처럼 시니코 부인의 열정적인 외침을 그저 에코의 메아리인 양 무시하면서 자신과의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결과 비록 그가 에피파니를 통해 자기 인식에 도달한다 해도 그것은 단지 찰나적인 경험에 지나지 않으며, 그 때조차도 그의 관심은 그녀가 아닌 오직 자신에게만 향해 있다.

따라서 그는 시니코 부인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읽은 후에도 그 사건의 피해자가 마치 자신인 양 행동하게 된다. 실제로 그는 그녀의 죽음에서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먼저 돌아보게 된다. 때문에 "그가 비록 그녀와 그녀의 사랑을 거부했고 또 그 때문에 그녀가 죽게 되는 책임에 대해 일말의 죄의식을 갖는다 해도, 그러한 죄의식은 결국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절망적인 상태를 회고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최후의 인식 또한 자기 자신의 고독감을 완전히 벗어나게는 하지 못하는 것이다"(Ryf 70). 여기서 "완전히 고독하다는 의미는 타인이나 모든 것으로

부터 절대적으로 멀어진다는 뜻이자, 결국엔 죽음의 순간을 맞게 된다는 말이다"(Boysen 400). 그런데 제임스 더피의 죽음은 사랑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고독하고 절대적인 초인이 되기로 결심한 "그의 오만의 결과이자, 프로이트(Freud)의 에고처럼"(Tindall 32) 철저히 자아 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그는 육체적인 욕구를 상징하는 사과를 악으로 간주하고 먹지 않았다.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생각한 바로 그 악이라는 사과가 결국은 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까지는 인식하지 못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가 비록 에덴동산에서 추방되었다고는 하나 그들은 결국 선과 악이라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비록 몸을 가리는 수치심을 안게 되었지만 그로인해 그들은 남녀의 성을 알게 되었으며, 비록 땅을 파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지게는 되었지만 그들은 그로인해 출산을 하고 인간의 조상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같은 논리로 제임스 더피는 선과 악의 상징인 사과를 먹지 않음으로 해서 타락하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그는 인간의 욕구를 거부함으로써 참된 인간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육체나 정서적으로도 남들과 어울리지를 못했다. 그 결과 그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타인과의 참된 교류이며, 남녀의 관계에서 싹트는 사랑의 감정은 육체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사회라고 하는 커다란 공동체에서 "영혼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마비된 생활을 하면서"(Spinks 68) 고독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III

앞서 논의에서 알 수 있듯 「가슴 아픈 사건」에서는 제임스 더피의 삶이 사랑의 부재로 인해 마비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 초인이 되고자 한 그의 결심이 좌절을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작품에서 사랑의 부재는 핵심어이자 주제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실 부재라는 개념은 『더블린 사람들』 전체의 주제를 일괄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가슴 아픈 사건」에서 제임스 더피는 사랑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전술한 대로 그가 비록 육

체에 대한 내면적인 욕망을 지녔다고는 하나, 그는 곪아가는 사과처럼 자신의 욕망을 철저하게 방치하는 자세를 취한다.

하지만 이는 아이러니컬한 결말을 초래하는데, 초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에서 방치한 욕망은 결국 그 자신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게 해서 잃게 된 활력은 마침내 자신의 삶을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의 욕망을 상징하는 사과는 "에덴동산에서의 선악과처럼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Bershtel 293), 그가 사과를 먹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그가 육체적인 욕망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것은 기실 그 자신은 물론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타락시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설적인 아이러니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본 논문에서 결론짓고자 했던 「가슴 아픈 사건」에서의 "가슴 아픈 사건"의 진정한 주체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이 작품의 주인공인 제임스 더피는 육체적인 사랑을 배척하는 플라토닉 러브만을 가치 있는 것이라 믿었고, 결국 천사의 지위에 오른 초인이 되길 꿈꿨다. 하지만 그는 사랑과 인생의 의미를 짐짓 잘못 해석했다. 사랑이란 무엇이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제임스 더피는 자신이 되고자 했던 초인의 개념을 창조한 니체를 철저히 답습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런 니체조차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생은 육체이며, 그리고 그 이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영혼이란 육체에 딸린 그 무엇인 것이다"(니체 73). 이 문장을 보면 자기 철학의 스승인 니체조차도 육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니체는 계속해서 삶을 사랑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그것과 접촉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실 제임스 더피는 그의 철학을 모방하면서도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사랑이 부재하고 인간적인 접촉이 불가능했던 그는 "인생의 향연으로부터 추방된 자와 같은 느낌"(*D* 113)을 가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로인해 그는 결국 "가슴 아픈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좌절된 초인으로 남는 것이다.

(배재대)

인용문헌

박윤기. "『더블린 사람들』의 가톨릭교/교리와 '이름 없는' 소년과 여성들의 성적 불안." 『제임스 조이스 저널』 14.1 (2008): 67-84.

전은경, 홍덕선, 민태운 공저. 『조이스 문학의 길잡이: 더블린 사람들』. 서울: 동인, 2005.

조세프 베디에. 『트리스탄과 이졸데』. 최복현 옮김. 서울: 사군자, 2001.

프리드리히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최승자 옮김. 서울: 청하, 1994.

Armstrong, Alison. *The Joyce of Cooking: Food & Drink from James Joyce's Dublin*. New York: Station Hill Press, 1986.

Bershtel, Sara. "A Note on the Forgotten Apple in James Joyce's 'A Painful Case.'" *Studies in Short Fiction* 16.3(1979): 237-40.

Boysen, Benjamin. "The Self and the Other on James Joyce's 'A Painful Case' and 'The Dead.'" *Orbis Litterarum*. Singapore: Blackwell Publishing Ltd., 2007. 394-418.

Brontë, Emily. *Wuthering Heights*. Oxford: Oxford UP, 1995.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New York: Routledge, 1990.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Princeton UP, 1987.

Joyce, James. *Dubliners*. Ed. Terence Brown. New York: Penguin Books, 1992.

_____. *Ulysses*. 1922. New York: Vintage, 1986.

Kershner, R. B. *Joyce, Bakhtin, and Popular Literature*. Chapel Hill and London: The U of North Carolina P, 1989.

Ryf, Robert S. *A New Approach to Joyce*. Berkely: U of California P, 1962.

Spinks, Lee: *James Joyce: A Critical Guide*. Edinburgh: Edinburgh UP, 2009.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ew York: Farra, Straus & Giroux, 1978.

Tucker, Linsey. "'Duffy's Last Supper: Food, Language, and the Failure of Integrative Process in 'A Painful Case.'"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James Joyce's Dubliner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8. 89-96.

Abstract

Love's Absence and Frustration of James Duffy in "A Painful Case"

Yunki Park

One of James Joyce's many alter egos, James Duffy who won't love anyone except himself is a frustrated superman. As he is incapable of reciprocating the human affection Emily Sinico offers him, Duffy is rendered a figure of despair. In "A painful Case," Emily Sinico seems to offer him a chance to regain his lost hope and life's un-enjoyed vitality. Duffy, however, fails to answer her "offer of erotic love" call. He is unable to regard her as a positive woman. Duffy in this episode can be said to have a human desire, sensuality, and love and the apple expresses his relation to them – "life's feast." As we can see, however, the apple is over-ripe and forgotten under the lid of the desk. The over-ripe apple which is on the verge of decay represents Duffy's corrupting his life. "Gnawing the rectitude of his life," he feels that "no one wanted him" and he is really an excluded remainder, outcast and exile from the world of life. He is in a sense Narcissus who loves only himself. Although he wants to be a Nietzschean "Übermensch" (Superman) by refusing the erotic love and being "an angelical stature," he ironically becomes a frustrated superman in the "love's absence" story by refusing the love.

■ Key words : James Duffy, Übermensch (Superman), human desire, apple, love's absence, Narcissus.
(제임스 더피, 위버멘쉬[초인], 인간적 욕망, 사과, 사랑의 부재, 나르키소스)

논문 접수: 2009년 11월 20일
논문 심사: 2009년 11월 30일
게재 확정: 2009년 12월 17일